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월간자산운용보고서

(준법감시인심사필2009-213호)

마이다스 블루칩배당 증권 투자신탁 C호(주식혼합)

2009년 08월

Fund Facts

투자 목적	펀드 자산의 50%내외를 주식에 투자합니다. 주식 투자 금액의 80%내외를 블루칩배당주(시가총액 상위 우량주중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여 주가상승이익과 배당수익을 함께 추구하며, 나머지 20%는 중소형 고배당주로 구성합니다. 채권은 국공채위주의 우량 채권으로 투자대상을 한정합니다.
운용개시일	2004-11-16
펀드 규모	670 억원
총보수	A1-1%선취+연1.55% / C1-연2.1%
환매수수료	A1-없음 / C1-30일미만시 이익금의 70%, 30~90일, 이익금의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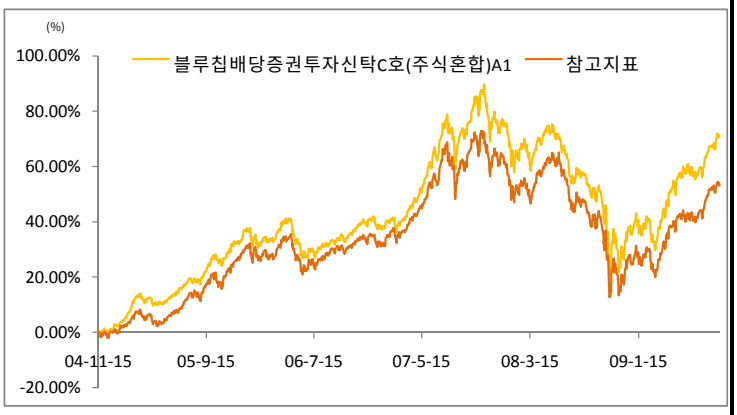
펀드운용실적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블루칩배당C호(A1)-혼합	2.46%	7.31%	28.83%	11.80%	70.99%
블루칩배당 C호(C1)-혼합	2.42%	7.16%	28.46%		13.93%
참고지표	0.99%	7.09%	25.46%	7.65%	53.15%

*참고지표: KOSPI변동률*50%+블름버그채권지수(국고채1~2년)변동률*50%.

수익률 추이

(2004.11.15~2009.08.31)



펀드매니저 리포트

지난 8월 한달간 펀드 수익률은 2.46% 였으며(A1기준), 동기간 참고지표는 2.42% 상승하였습니다. 참고지표대비 수익률이 높았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성과가 좋았던 전기전자, 철강업종의 주식편입비중이 높았습니다. 둘째,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녹십자, 삼성SDI, 서울반도체 같은 일부 중형주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셋째 주식 비중을 57% 이상 유지하며 상승장에 대응을 하였습니다.

주식시황

8월 주식시장은 실적 발표가 마무리 되면서 대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하반기 이익 전망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 되었고, 2분기 경제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어 종합주가지수가 연중 고점을 상향 돌파하였습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국내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원화 강세 예상 등이 외국인 매수세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업종별 주가 수익률은 전기전자, 자동차, 일부 화학 및 제약 업종이 상대적으로 돋보였으며, 조선, 철강,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유통 업종의 수익률은 부진하였습니다. 상반기는 중국 및 한국의 경기회복이 두드러졌다면 하반기는 선진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수출기업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더욱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향후 출구전략(Exit Strategy: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내놓았던 각종 완화정책을 경제에 큰 부작용 없이 서서히 거두어 들이는 전략)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 질 것으로 보여 상승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펀드에서 현물주식은 55% 전후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보유분의 80% 수준은 블루칩배당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며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중 고배당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식보유분의 20%는 중소형 고배당종목중에서 엄선한 마이다스고배당주로 구성됩니다.

① 블루칩배당포트폴리오

블루칩 배당포트폴리오 중에는 LG화학, LG, 현대차 수익률이 양호했으며 현대중공업, POSCO, SK텔레콤, 두산중공업등의 수익률이 저조했습니다. 지난 달은 삼성전자, POSCO, 신한지주, 현대제철 등을 순매수 하였으며 현대차, KB금융, KT, SK텔레콤 등을 순매도 하였습니다.

② 마이다스고배당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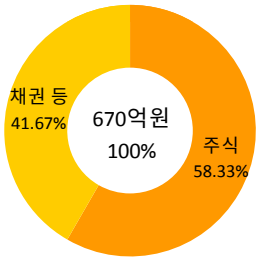
마이다스고배당주 중에는 성우하이텍, 대한유화 등의 수익률이 양호했으며 JS전선, 웅진씽크빅, CJ, 대양금속 등의 수익률이 부진했습니다. 지난 달은 성우하이텍, 서울반도체, LG하우시스, 웅진코웨이 등을 순매수 하였으며 KCC, 넥센타이어, 오리온, 유한양행, 태광 등을 순매도 하였습니다.

채권

채권은 국공채 및 통안채 위주의 우량채권에 한정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펀드 전체 평균 듀레이션은 1.12년입니다. (펀드기준)

포트폴리오 현황

[2009.08.31 기준]



상위보유종목(주식)

[2009.06.30 기준] (순자산총액 비중 34.83%)

1. 삼성전자
2. POSCO
3. LG전자
4. 현대차
5. KB금융
6. 현대제철
7. SK텔레콤
8. 한국전력
9. SK에너지
10. KT
11. LG디스플레이
12. LG화학
13. 신한지주
14. 효성
15. 현대건설
16. 하나금융지주
17. LG
18. 대우증권
19. 엔씨소프트
20. 현대모비스(합신)

상위보유종목(채권)

[2009.06.30 기준] (순자산총액 비중 36.15%)

1. 통안45-703-2-28
2. 예보상환기금채09-2
3. 국고0525-1209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본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진 않으며, 본 자료상의 운용계획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운용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